

금호타이어, 북미에서 자발적 리콜

10PR제품 소비자 불만 접수로 ... 국내에는 적용차종 달라 판매 안돼

금호타이어는 북미 지역에서 판매해온 일부 제품에서 소비자 품질 불만 사례가 접수됨에 따라 자발적인 리콜(Recall)을 실시한다고 7월18일 발표했다.

리콜 대상은 2005년 중국 Nanjing 공장에서 픽업(Pick-up) 트럭용 제품으로 생산한 KL78과 824제품 가운데 고하중용으로 개발한 10PR제품 9개 규격 7만8321개이다.

10PR은 북미 시장용으로 개발돼 판매된 것으로 국내에는 적용 차종이 달라 판매된 적이 없다.

금호타이어는 10PR을 구매한 소비자가 요청하면 같은 규격의 개선된 제품으로 무상 교환해주기로 했다.

금호타이어 관계자는 “현재까지 접수된 클레임이 361건에 불과한 상황이지만 고객 신뢰 경영의 일환인 새로운 품질시스템 도입에 따라 자발적으로 리콜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서울=연합뉴스) <저작권자(c)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 금지>

<화학저널 2006/07/19>